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공연장과 예술단 동행 움직임

# 공공 공연장·예술단 손잡으니 관객도 늘었다

서귀포예당과 서귀포예술단 작년 4·3 추념 음악회 각각 올해 3·1 음악회 공동 기획 높아진 객석 점유율 등 효과 입증만 말고 함께 살기 필요

▶공동 무대 결실에 연말 송년을 악회도 같이=서귀포예술의전당과 서귀포예술단이 서로 손을 잡은 배경엔 지난해 4·3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제각각 치른 경험이 작용했다. 당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희망음악회'를 기획해 유명 가수와 성악가를 초청해 4월 3일 해당 공연장에 올렸고 서귀포예술단은 이를 뒤인 5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모차르트 '레퀴엠'으로 추념 음악회를 선보였다.

연주곡과 출연진 면면이 달랐지만 같은 공연장에서 잇따라 4·3 음악회가 이어지면 관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공연에 대한 흥미도 떨어진다.

그저서 올해는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서귀포예술단이 3·1운동 100주년 음악회를 공동 기획했다. 이들은 연말 송년 음악회도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선곡해 공동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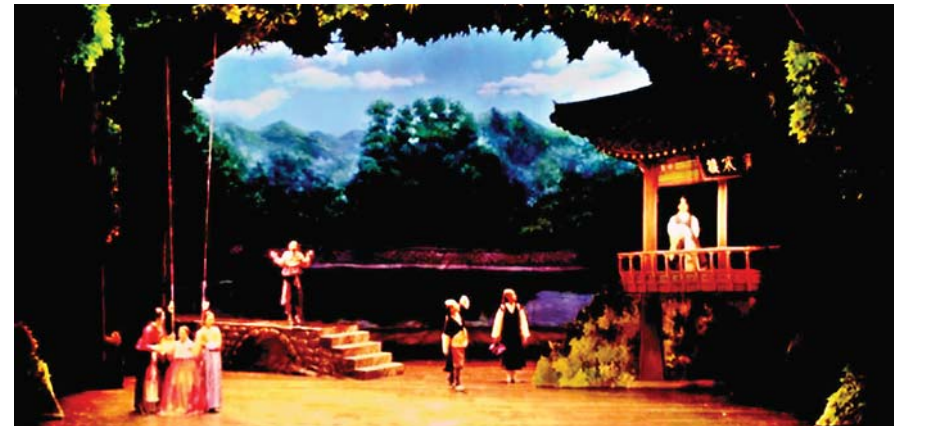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서귀포예술의전당 3·1 운동 음악회의 경우 600석 규모 1층에 빈 자리가 거의 없는 등 평소 서귀포예술단 공연보다 높은 객석 점유율을 보였다. 공공 공연장과 국립 예술단의 동행은 적어도 관객 개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지역 예술인 참여 늘리고 공연비 부족 보완=지난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 기간에 제주도문화재단은 공연장과 연계해 규모있는 무대를 추진할 수 있다.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서귀포예술단이 그 출발점을 보여줬다.

이번엔 도내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회원 기관인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예술의전당에는 소속 예술단이 없다.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은 제주아트센터에 입주만 했을 뿐이고 서귀포합창단 역시 서귀포예술의전당에 등지만 들었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두 공연장과 제주·서귀포예술단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동 기획이 가능해보인다. 공공 공연장과 국립 예술단의 협업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 공연장은 지역의 전문 공연예술인들을 활용한 작품 기획이 용이하고 전체 예산 중 공연비가 절대 부족한 국립예술단에서는 공연장과 연계해 규모있는 무대를 추진할 수 있다.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서귀포예술단이 그 출발점을 보여줬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이 국내 창작오페라의 효시인 현재명 오페라 '춘향전'으로 제주를 찾는다.

## 첫 창작오페라 '춘향전' 제주 무대에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 도문화진흥원 초청 공연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오페라인 현재명의 '춘향전'이 제주 무대에 오른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은 이달 19~20일 3회에 걸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사단법인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의 오페라 '춘향전'을 초청 공연한다.

이번엔 제주를 찾는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은 메조소프라노로 40년 넘게 오페라 '춘향전'을 누벼온 강화자 단장이 이끄는 단체다. 처음으로 제주 무대를 갖는 이들은 우리 고전 문학에 바탕을 둔 3막 오페라 '춘향전'은 성악가의 역량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화자 단장이 연출을 맡았고 박미자(춘향) 이정원(이도령) 김성진

(방자) 김문희(향단) 김관현(사모) 이수준(월매) 박희라(월매)가 주역으로 나선다. 7월 19~20일 오후 7시 30분 만날 수 있다.

도문화진흥원은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과 협력해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주역으로 참여하는 일정도 별도로 짜다. 7월 20일 오후 3시 공연으로 정혜민(춘향) 박웅(이도령) 김신규(방자) 한은주(향단) 김훈(사모) 김지선(월매)이 캐스팅됐다.

춘향과 이도령의 이중창 '사랑가'를 비롯 '그리워 그리워', '동편하늘', '농부가' 등 인상적 노래가 흐른다. 코리아슬리스트오케스트라(지휘 박인욱)가 연주하고 제주도립무용단, 마에스타합창단이 출연한다.

관람료는 1층 1만5000원, 2층 1만원. 문의 064)710-7643. 전선희기자

# 예술작품으로 해법 모색한 바다쓰레기

제주현대미술관 기획전시 플라스틱·페비닐 등 이용 국내외 11팀 생태미술 작품



일본 노기타 카오리의 '트래블링 마블스(traveling marbles)'.

제주 해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생물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해양 환경에 주목해 이를 시각예술 작품에 담고 있는 작가들이 제주로 모인다. 생태미술관을 표방하는 제주시 환경면 저지리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기획한 국제생태미술전이 열리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전시는 '오션(Ocean)-뉴 메신저스(new messengers)'라는 이름을 달았다. 동시대 예술가들에게 미래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뜻이 들어있다.

출품 작가는 11명(팀)으로 회화, 입체, 미디어, 설치 등 50점 가까운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에 사용되는 물품은 대부분 재생품이나 재활용품

이고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담은 아카이브 자료도 나온다. 제주 정은혜 작가는 해변에서 수집된 플라스틱 조각을 이용해 '만다라' 작품을 내놓는다. '제주도 좋아'는 환경관련 노래를 수록한 재생플라스틱 LP 등을 전시한다. 부지런 작가는 어선 폐집어들을 활용한 설치작품 '넷-빙(Net-Being)'을 선보인다. 대만의 '타이월더풀'팀은 바다에서 채집된 페비닐과 로프, 플라스틱

으로 '불멸의 해파리'를 설치한다. 일본 대마도의 노기타 카오리는 유리 조각들을 가공한 '트래블링 마블스(traveling marbles)'를 준비했다. 전시는 7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계속된다. 첫날 오후 5시부터 마련되는 개막 행사에서는 재생플라스틱 LP판 '바라던 바다'에 참여한 장필순의 노래 공연, 양쿠라 작가와 토요야마 쇼이시의 협연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전선희기자

##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7월 4~7일 제주서 열려

국립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주연구원, 한국해양재단,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사)한국글로벌비즈니스연구소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이달 4~7일 '태평양시대 제주의 해양경제와 해양생태문화'를 주제로 제주에서 열린다.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25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적인 도서해양 종합학술대회다. 참가자 전원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열린 학술대회로 9회까지 진행되던 동안 1500여 편의 도서해양 관련 주제가 발표됐다.

대회 첫날인 4일에는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오선홍에서 '태평양시대 제주의 해양경제와 해양생태문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5일에는 인문대학 2호관에서 20개 분과 회의와 이수종합 토론이 마련된다. 6~7일에는 제주 동부와 서남부 지역으로 해안을 돌며 제주의 해양문화 유산을 답사한다. 문의 064)720-8103, 061)260-7103.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쏘다

김수현 '귀얄과 덩빙' 전

제주 도예가 김수현씨가 10년 만에 분청작업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서귀포시 이충섬미술관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귀얄과 덩빙' 전이다. 귀얄과 덩빙은 분청사기의 7가지 분장기법 중 하나다. 고려청자를 이어온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을 잘 드러낸다. 김 작가가 '법고창신'하며 기존 작업에 변화를 주려는 전시로 7월 4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10-3696-1573.

국제해양영화제 초청

제주도 조간대 생물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조수웅덩이: 바다의 시작'이 7월 5~8일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영화제

에 초청됐다.

이번 영화제는 '파도가 부르는 소리'를 주제로 12개국 24편의 장·단편 해양영화를 선보인다. 7월 오후 2시30분에 상영되는 '조수웅덩이...'는 도내 해양다큐멘터리 프로덕션인 김이와 바당(대표 임형목)에서 제작한 58분짜리 장편으로 배우 임채무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

김정문화회관 공연장상주단체(사)제주빌레앙상블의 이미지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가 오는 6일 오후 5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설문대 할망과 돌하르방이라는 친숙한 소재에 동서양의 음악과 무용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했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4)760-3792.

2억원 보증보험가입

선착순특가 여름방학

### 단일회 몽골전세기

울란바토르

1,599,000원 → 1,399,000원

7/23(화) ~ 7/28(일)

4박6일 (제주출발17:00, 제주도착07:30)

안국정부 인가조건

올포함! NO탑+NO옵션

### 베트남전세기

다낭 / 호이안 / 후에

전세기특전 ① 5성호텔 ② 옵션(\$250)포함 ③ 특식6회

1,299,000원 → 1,199,000원

개천절 연휴 10/2(수) ~ 10/6(일)

3박5일 (제주출발21:30, 제주도착08:00)

**니하오여행사** 722-6638

포함사항 : 항공료,호텔,차량,식사,입장료,가이드,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몽골비자비, (기사&가이드)봉사료,VAT

**조아투어** 742-1980

(전세기)컨소시엄 문의 : 010-2294-0592